



대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쓰시다!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 2019. 6. 30.(다해) 제2166호



사진 / 양병주 분도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루카 9,60)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오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엘리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부모와 작별하고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 사람들에게 대접한 다음 엘리야를 따라나섭니다. 과거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 술 더 뜹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선택된 이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도,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드는 예수님의 이 요구는 우리가 복음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당하실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엄중하고 비장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엄중하고 비장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첫째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기댈 곳조차 없다.”하시며 그 사람을 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 즉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름이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라라.”하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제자 됨이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주님 따라나서기를 뒤로 미룹니다. 주님의 제자 됨은 내일로, 나중에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좀 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이들 좀 큰 다음에, 이 일만 끝내놓고, 등의 핑계를 우리는 수없이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름은 지금 여기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셋째 사람은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 곧 과거에 얽매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일, 상처, 원한, 실패, 후회, 아쉬움 등에서 벗어나야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완벽한 과거, 완벽한 부모, 완벽한 가정, 완벽한 학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할 겨를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으로 당신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2019년이 어느새 절반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올해의 중간 지점에 서서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앙인인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늘 주님의 뜻에 응답하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소명에 충실한 사람인가? 욕의 욕망을 채우려 하기보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왔던가, 사랑의 계명을 좇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써 왔던가?’ 우리 모두 좀 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

이상택 리노 신부 | 매일신문사 사장

자, 선교하러 갑시다!



내가 선교사로서 양성을 받았던 독일의 '검은 숲'이라는 곳에 자리한 모든 성인의 마을은 우리나라로 치면 꽤나 깊은 산중에 있는 외딴 장소였다. 아랫마을에서부터 자동차로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약 15분이나 달려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폐허가 된 성당과 폭포가 있어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곤 하였다. 그곳에서 선교사 양성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선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만큼

이나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와 복음정신으로 공동체 사람들과 사는 것이었다. 독일에 있기는 했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만큼 역시 영어는 필수였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내가 선교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화장실 청소, 부엌일, 정원 돌보는 일, 성당 청소 그리고 공동체의 허드렛일뿐이었다. 처음에는 마음에 큰 불편 없이 잘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 자신이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고, 특히 언어 때문에 오는 많은 오해와 무시당하는 기분에 도대체 내가 이곳에서 뭘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게 좋고 행복했던 공동체 생활도 힘들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그것은 일상의 삶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복음의 정신을 육화시켜 선교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더 큰 지혜였던 것이었다.

더 많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과 갈등이 차오르고 나를 비롯해 여러 선교사들 간의 갈등과 공동체 삶의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동체의 흔들거림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 초창기부터 공동체 생활을 했던 선배 선교사의 특 던지는 한 마디가 있었다. "이제 선교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자, 선교하러 갑시다!" 그 선배 선교사 말대로 우리는 곧 선교를 준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큰 도시에 거리선교를 나갔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 기도로써 한마음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던가를 되새기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격려했다. 선교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증거했다는 뿌듯함과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더 튼튼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선교를 나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는 요청에 의해서도 계획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지만, 공동체에 문제와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에도 선교는 필요했다. 주님은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관계적 문제를 정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는 커다란 은총과 축복, 그리고 일치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김민**



교황 삼중기도, 중동 위한 호소와 “옆집의 성인” 기억



교황은 카메리노 마을의 카부르 광장에 모인 사람들뿐 아니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거룩한 미사에 영적으로 일치한 모든 이들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교황은 특히 “병든 이들, 노인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기억했다. 또 “짧지만 강렬했던 이번 방문을 위해 애쓴 단체, 조직, 협회 그리고 모든 개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주(州) 카메리노 마을에서 미사를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삼중기도를 통해 이번 방문을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옆집의 성인들”을 기억했다. 또 중동지역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기를 염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말미에 삼중기도를 바치기에 앞서 “결프 지역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중동지역의 갈등이 빛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주시길 모든 이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국제사회가 대화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난민들의 역경

교황은 6월 20일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임을 상기시켰다. 교황은 “이 날은 전쟁과 박해, 폭력사태에서 도망친 이들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날”이라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에 관심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옆집의 성인들

교황은 “신앙과 희망, 사랑(자선)의 길을 기쁘게, 또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란다.”라며 “또 성덕으로 충만한 여러분 땅의 수많은 증거자들에 충실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처럼 유명한 성인이 아닌 다양한 모습의 “옆집의 성인들”도 언급했다. 옆집의 성인들이란 복자품이나 성인품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 삶의 모습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돌보고 변화시킨 이들을 말한다.

새 복자

교황은 지난 6월 15일 토요일 사르데냐에서 거행된 에드비제 카르보니(Edvige Carboni)의 시복식도 언급했다. 교황은 그녀가 “일상에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신앙과 사랑의 증거자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그날 모인 이들에게 새롭게 복자품에 오른 그녀를 위해 박수를 보내달라고 청했다. 아울러 “평생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온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인 이 여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 6월 16일 바티칸 뉴스 번역 | 양서희

침묵을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하느님,
 저의 침묵 안에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시끄러운 소음이
 그리고 근심으로 시끄러운 내면의 소음이
 저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당신이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귀 기울일 힘마저 잃어버렸을 때에도
 당신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비오니 주님,
 이 사랑스런 목소리가
 저의 동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헨리 나웬 (Henri Nouwen, 1932~1996) : 사제, 신학자, 영성가

지혜의 숲

도 전

한 나태한 제자가 자기는 스승이 자주 칭송하는 그 침묵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활동적인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1열왕 19,16L,19-21	제 2 독 서	갈라 5,1,13-18	복 음	루카 9,51-62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제 뉘의 유산이시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6.23(일) | 한국 SOS 어린이마을 축복식 미사
 6.24(월)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사제 서품식
 6.25(화) | 한반도 평화 기원미사
 6.27(목) | 3대리구 사제 피정 파견미사
 6.28(금) | 사제 성화의 날 미사

6.28(금) | 4대리구 사제 피정 파견미사
 사제 성화의 날 미사

'용서와 화해의 해' 선교 신앙수기 공모

'용서와 화해의 해'를 맞아 '특별 전교의 달'을 앞두고 전 교구민을 대상으로 선교 신앙수기를 공모합니다.

1. 접수기간 : 6월 3일(월) ~ 10월 4일(금) 2. 공모대상 : 교구 내 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신자(1인당 1작품)
3. 공모주제 : 냉담자 회두 및 선교활동사례 / 선교에 관련한 체험담 / 용서와 화해에 관련한 사례와 체험담 /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개종사례 포함)
4.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20매, A4용지 2~4매(한글 11포인트 기준) 5. 출품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와 각 본당에 배포된 **포스터**를 참조하시거나
 문화홍보국 053)250-3046~9(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케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사목국 유사종교담당, 250-3123



미사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일(월) 11:00 신평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1일(월) 19:30 꾸르실로교육관

성소 | 피정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때 / 장소: 원하는 곳
대상: 자비와 해방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
문의: 채세실리아 수녀, (010)9492-0295
<http://www.mercedarias.kr>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7.6(토) 10:00
내용: 찬양미사, 고해성사, 안수
특강: 문봉환(야고보) 신부
셔틀: 영남대역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베네딕도영성관 피정

직장인을 위한 쉼: 7.19(금)~20(토)
7.26(금)~27(토)
하느님을 찾는 여정: 7.20(토)~21(일)
신약성경 통독(4복음): 7.25(목)~28(일)
문의: (010)7103-3425 / 313-3425

아씨시수녀들과 함께하는 음악 피정

일시: 7.13(토)~14(일) 1박 2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회비: 2만원
주최: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예수회 성소 피정

일시: 7.11(목)~14(일)
장소: 보은 메리워드영성집

문의: (010)3324-0731
<http://vocation.jesuits.kr>

살레시오수도회 여름 성소 대피정

일시: 7.19(금)~21(일) 2박 3일
장소: 충남 태안 살레시오피정센터
대상: 중고생, 대학일반(35세 이하)
문의: (010)5159-3949 / (010)3894-1332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입문 피정

일시: 8.7(수)~11(일)
장소: 서울 성베네딕도회 피정의집
비용: 36만원
지도: 허가브리엘 신부

신청: 김테레사, (010)3827-0092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예수마음 피정: 10.16~20 / 10.2~10
11.2~3 / 9.30~10.31
에니어그램: 10.25~27 / 11.29~12.1
문의: (031)946-2237, 2338

<http://www.jesumaum.org>

교육 | 모집 | 기타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일시: 7.20(토)~21(일) 1박 2일
대상: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교사·학부모
접수: 7.10(수)부터 양업고 홈페이지
문의: (043)260-5076
2020년 입학전형 안내도 함께 합니다.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일시: 9.18(수) 터키, 그리스
경비: 398만원(12박 13일)
일시: 9.20(금) 성모 발현지
경비: 395만원(12박 13일)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해외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9개국 14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봉사단원 모집

긴급재난구조, 다문화 봉사, 밥차, 환경개선, 이발봉사 등 월 1회 이상 봉사활동
문의: 253-9991(내선 1번)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결혼」리스토리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인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0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선나 교황백사 대구경북대병원수사소장
010.6571.3385 | 053.586.3220
성서 계대 등문 맞은편 국내-대구 밀서 0003호
www.LeeStory.kr 국제-대구 밀서 0002호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월명성모의집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성모님 사랑안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보금자리~
60세 이상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한 본
☎(054)434-2898

암·재활·소화기·통증·건강검진
Happy! 갯마을병원
의사와 환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053)670-6000**

참사랑실버요양원
참사랑인지마을
주님 안에서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모십니다.
● 인지마을(치매전문) 오픈 원장
● 호스피스실 운영 최홍병(분도)
● 장기요양인정등급 1~5(시설등급) 받으신 어르신들 모십니다.
대구 서구 가락방이로21길 3 | **상담전화 053)563-0657**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진요가·필라테스 센터
자세교정 · 코어운동 · 재활운동
원장 도 진희 (유스티나)
053.755.8800 | 010.9360.626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숲화성파크드림S파라트 상가2층 227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동연(베드로) 신부
1981년 7월 2일
- 김영옥(요한) 신부
1996년 7월 4일
- 이종필(마티아) 신부
1954년 7월 4일
- 권유량(마리오) 신부
1944년 7월 6일

행사 | 모임

2박 3일 성령 묵상회

일시: 7.26(금)~28(일)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1박 2일 치유 피정: 7.6(토)~7(일)
차량운행 / 문의: (010)9045-0191

교육 | 모집

제7차 약혼자 주말

일시: 7.12(금)~14(일)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대상: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
신청: <http://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010)9395-2247

성마리아 영어성경대학 수강생 모집

월요일 15:00 / 금요일 19:00
장소: 불로성당(수시 접수)
과정: 창세기-마르코요한 / 월 3만원
방법: 영어성경 음독-해석 및 영어성가
문의: 981-2035 / (010)2578-553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오카리나, 가족·섬유공예, 제대꽃꽂이, 피아노, 발성법,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색자아트, 원어민영어영어, 미술심리2급자격과정 / 신청: 254-6115

2019 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6.24(월)~7.4(목)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전례생활연구회 월례 공부 모임

일시: 7.1(월) 19:30~20:30
장소: 대안성당(중앙로역 4번 출구)
주제: 미사경본 총지침
대상: 전례 봉사자, 관심있는 신자
문의: (010)3524-3217 / (010)3544-2806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72차 ME주말: 7.26(금) 19:00~28(일)
373차 ME주말: 8.9(금) 19:00~11(일)
장소: 한티피정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성지안내봉사를 위한 한국천주교회사

일시: 9.3~12.3 매주 화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6만원(교재비 별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6610-6103

채용 | 안내

비산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문의: 비산성당, 564-1004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인원: 여성 0명 / 마감: 7.12(금)
접수: 우편, 방문, 메일 접수 중 선택
문의: 859-4063~4
<http://dormitory.cu.ac.kr>

부산교구 혼인강좌 초빙교수 채용

분야: 심리학 및 유관 학문
서류: 이력서, 교적, 박사학위증 사본
마감: 7.31(수) 우편 접수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8-7)
문의: 가정사목국, (051)441-350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석환, 김영민, 권영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봉사자 모집

대상: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수자
문의: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253-1401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백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백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중전라번대 맞은편)
☎ 053)942-8822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증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죽전네거리 서점시장 맞은편
T. 555-5520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SOCIAL WORKERS **채움기프트**
판촉물/기념품/답례품/사은품
단체선물/건강기능식품
판매금액의 0.5%는 사회복지관 및 시설에 후원됩니다
대표 이상용(안드레아) 010-4570-3997
D+M 채움기프트 를 만나 보세요.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의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자사미
4종 효소 단식 프로그램
알칼리 이온수기 보급
판매처(월) 문의
자연 치유력 회복, 수질보호
신청미 글라라
T. 010-9363-7784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빛)에서 시각장애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원할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